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이 총공세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워 주신 각지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년초부터 중산투쟁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직공업, 편직공업, 신발공업, 식료품공업, 일용품공업부문의 모든 현지지도 단위들이 지난 1월 인민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경공업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하여 그무런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일터마다에서 높은 혁명적열정을

발휘해나가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삭주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총공세의 불길높이 힘찬 투쟁을 벌여 질 좋은 방직사와 천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사는 평양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방직공장들의 직공들은 실 잇기와 복고제시간을 단축하고 기계대수회방법을 갱신하기 위해 남다른 열성을 쏟아부어 매일 계획을 200%이상 넘겨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기울여 인민소비품에 대한 애정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배워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신교편직공장, 강계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도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창조적열정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소비품에서 수요가 높은 편직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신교편직공장에서는 올해에 대하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

면서 기세좋게 전진하고 있다. 강계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편직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형태가 새로운 여러 가지 편직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열마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신장애하고 불꽃피는 생산전투를 벌여 속내의 불을 비롯한 편직물 생산을 높이고 있다.

신발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신발의 질적구성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질 좋은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 있다. 신의주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발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신의주신발공장에서 는 세해 첫날부터 편일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신발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각지 식료가공업부문, 일용품공업부문의 모든 현지지도 단위들에서 수요가 높은 편직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신교편직공장에서는 올해에 대하여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

수행하였다. 평양일용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세수비누, 치약을 비롯한 1차소비품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녀성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질 좋은 화장품들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평양일용품공장, 함흥영예군수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도 새해 첫 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영예군수일용품공장의 근로자들은 지난 1월에 갖가지 사출장화와 비옷을 비롯한 일용품생산에 부쩍 늘어 맡겨진 계획을 지료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각지 지방공업공장에서도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올해의 첫 전진군을 힘차게 내딛던 각지 경공업부문 현지지도단위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잊고 2월에도 더 큰 생산성과를 안을 불타는 열정을 안고 기세좋게 전진하고 있다.

맹산 교복 공장

맹산교복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여러가지 지은웃을 땀시키고 보기 좋게 만들어 내내 인민들의 수요를 탄탄히 충족시킬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장에서는 학생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은웃생산을 부쩍 늘여 맡겨진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더 잘 풀자면 교복공업부문에서 어린이옷, 학생옷, 어른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은웃을 땀시키고 보기 좋게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옷생선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은 모든 기대공들이 기술기 능수준을 높이는데 전심전신로 과 과하기중사업을 틀어쥐고 내걸고 있다.

공장에서는 모든 기대공들이 맡은 기대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기술학습을

공장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복작업반원들이 질적고투쟁을 이악하게 벌리고 실수율을 높여 매일 계획을 110%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다. 작업반의 제복공들은 기술구성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하나의 옷을 만들어도 정성을 쏟아 붓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 작업반원들은 학생옷과 어른옷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은웃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보기 좋게 생산하여 날이 갈수록 근로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직조작업반원들도 제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란영동무를 비롯한 직조공들은 기대를 언저리 눈동자도 같이 아끼고 관리하여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올리며 질 좋은 천을 생산하고 있다.

공부작업반원들은 공장안의 모든 기대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작업을 엄격히 세우고 기대가동과 수리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제품의 질제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방 인 칠

은정속에 솟아난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

해주시의 아름다운 수양산 기슭에 현대적인 수양산종합 식료가공이 일떠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솟아난 이 공장에서는 갖가지 식료가공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공장에는 사랑, 파자를 비롯한 각종 식료품을 생산할수 있는 설비들이 그럭이 갖추어져 있다. 그 가지수만 해도 300여가지나 되며 연간생산 능력은 수천톤에 달한다. 더구나 기계적은 황해도지 지방에서 손꼽히는 산나물과 과일, 바다나물로 만든 도라지정과, 각종 어린이식료품, 다시마가공품 등이 생산되어나오는것이다.

이런 갖가지 식료가공품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기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난해 온 나라 곳곳에 종합적인 식료가공기

지를 꾸리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커가는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며 조강조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잊고 도에서는 지난해 4월 공장건설의 첫 삽을 닦았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에서는 강력한 건설시위부를 조직하고 각 지, 군들격대물 무어 공장건설을 본매있게 내밀었다. 동시에 필요한 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으며 경영관리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었다.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열정대원들,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장은 짧은 시간에 건설되어 생산에 들어갔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수천근루의 수장이 좋은 과일 나무를 구애에 심었다. 구애들은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어느모로 보나 손색없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이 꾸려져나갔다. 공장은 도내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올해공정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끄는 격투속에 집한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하여 식료품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공장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컴퓨터에 의한 당과류생산공정의 조정계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뎠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불타는 열정을 불타는 열정을 안고 기세좋게 전진하고 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경공업제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

경공업제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추켜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우리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전당적, 전국각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날로 높아지는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할수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공세에서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책임적이며 중요하다. 각지 경공업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안고 질 좋은 갖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헌신분투하여야 한다. 우선 경공업제품의 품질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 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 쓸모있고 형태가 새로운 제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와야 우리 인민의 행복찬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할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 제품개발을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는것과 동시에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아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각지 공장, 기업소들이야, 직장, 작업반 및 개별적인 생산자들에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무를 안고 기세좋게 전진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공정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평양어린이제복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합동모방직 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정말 1 작업반, 정말 2 작업반을 비롯한 직장의 모든 작업반들이 경정적으로 소모사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직장은 내일도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나미 제품들이 실지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공정들의 현대화를 계속 줄기차게 내밀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경공업공정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다그치며 이바친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선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중도반담함이 없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공업공정들을 만부하로 돌리는것과 함께 전군중적인 투쟁으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과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대 선공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 공장, 기업소의 특성에 맞는 생산지표들을 개발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광범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편담단위들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공업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에 선진적인 관심을 돌리고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경공업발전의 직접적 담담자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인민의 총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적인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고 온 나라가 흥성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생산되는 하나하나

본사기자 리명일

일정계획을 철

선 넘쳐 수행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신 뜻을 받들고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평양 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 59차 전원회의가 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농공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올해공정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공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환경농업농공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해공정사설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의 하나로 정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농공맹조직들의 사상교양적 역할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기하였다.

농공맹조직들은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이 올해의 보람찬 투

쟁에서 무한대한 정신력을 발휘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원들의 혁명적열정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농공맹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결집한 혁명가, 수형결사옹위의 전투투사로 탄탄히 준비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적극 도와주는데와 함께 《당이 결심하신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외치는 열매와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고 원공미공을 높이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탄탄히 틀어쥐고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농공맹의 모든 령령을 총동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어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농업생산목표를 정령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그

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쟁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농업근로자들이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알뜰하고 간지게 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향마을을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도록 경제생활활동을 활기있게 벌려 협동마을을 혁명적평안과 전투적기상이 차려지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를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이려는 당의 뜻을 실천하는데 지향시키고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조급전진대열을 탄탄히 꾸리고 동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공맹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정신을 체득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첩첩같이 묶어 세움으로써 모두가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창조정신으로 농업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10월의 대추경장에 맺듯이 들어서서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합니다.》

지금 전국의 선동원들은 총공세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려나가고 있다. 선동원들의 발걸음이치는 곳마다에서 조계산들의 북소리처럼 울리고 새로운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그 어딜 가나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력을 발달하는 우리 당의 미려운 당초급선동원들인 선동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고향마을을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도록 경제생활활동을 활기있게 벌려 협동마을을 혁명적평안과 전투적기상이 차려지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를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이려는 당의 뜻을 실천하는데 지향시키고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조급전진대열을 탄탄히 꾸리고 동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서 설비가중에 중단되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 그는 정황에 맞게 구두선동을 기동적으로 벌렸다.

그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결사의 각오를 안고 선군조선의 불굴의 정신력과 본래를 보여주자고 호소하면서 남면저 흠대물 지고 내달리며 농장원들을 불러들였다. 그러하여 짧은 시간에 터진 단독을 막음으로써 수백정보의 논밭을 지켜낼수 있었다.

지나해에 일어난 150 일전투와 100 일전투기간에도 그는 농날에 불어살다시피 하면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켜 정정보당 유기질비료를 30t 이상 내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풍만한 결실을 안아오게 하였다.

인민봉사총국 농무장관리국 창대농장 제 5 작업반 2분조 선동원 손순길동우는 배두산3대장군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의의성에 대한 교양자료들과 각종 선동자료 1만여권을 만들어내거는 선동활동을 대량의 준비정도와 정황에 맞게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면 실능공이었다.

그는 풀베기일면 500t 이상의 풀을 베기 위한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풀을 베어놓았다. 지어 감을 건너다니면서 다른 리에 가서 풀을 베어오기도 하였다.

본선조 선동원 황선일동우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는 언제나 맹목함인 리지던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이 총공세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워 주신 각지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년초부터 중산투쟁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직공업, 편직공업, 신발공업, 식료품공업, 일용품공업부문의 모든 현지지도 단위들이 지난 1월 인민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경공업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하여 그무런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일터마다에서 높은 혁명적열정을

발휘해나가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삭주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총공세의 불길높이 힘찬 투쟁을 벌여 질 좋은 방직사와 천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사는 평양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방직공장들의 직공들은 실 잇기와 복고제시간을 단축하고 기계대수회방법을 갱신하기 위해 남다른 열성을 쏟아부어 매일 계획을 200%이상 넘겨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기울여 인민소비품에 대한 애정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배워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이 총공세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워 주신 각지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년초부터 중산투쟁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직공업, 편직공업, 신발공업, 식료품공업, 일용품공업부문의 모든 현지지도 단위들이 지난 1월 인민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경공업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하여 그무런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일터마다에서 높은 혁명적열정을

발휘해나가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삭주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총공세의 불길높이 힘찬 투쟁을 벌여 질 좋은 방직사와 천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사는 평양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방직공장들의 직공들은 실 잇기와 복고제시간을 단축하고 기계대수회방법을 갱신하기 위해 남다른 열성을 쏟아부어 매일 계획을 200%이상 넘겨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기울여 인민소비품에 대한 애정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배워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이 총공세의 앞장에 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몸소 찾아주시고 내세워 주신 각지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년초부터 중산투쟁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직공업, 편직공업, 신발공업, 식료품공업, 일용품공업부문의 모든 현지지도 단위들이 지난 1월 인민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경공업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응하여 그무런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단위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일터마다에서 높은 혁명적열정을

발휘해나가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9월방직공장, 삭주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총공세의 불길높이 힘찬 투쟁을 벌여 질 좋은 방직사와 천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사는 평양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방직공장들의 직공들은 실 잇기와 복고제시간을 단축하고 기계대수회방법을 갱신하기 위해 남다른 열성을 쏟아부어 매일 계획을 200%이상 넘겨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기울여 인민소비품에 대한 애정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배워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천만군민을 총공세에로 힘있게 부르는 전투적화폭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새해 정초부터 초강도강군군길을 헤쳐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인창작가들이 창작하여 내놓은 선전화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4. 25문화회관에 전시하여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속에 성대히 열린 이번 조선인민군선전화전람회는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전화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현상들과 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서 대중선전운동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람회는 어머니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전람회장 곳곳에 정중히 모시도록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의 길에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선전화 《당창건 65돌을 기념하여》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자!》는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 인민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송가적양상의 기념비적작품이다.

태양과 같이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신 작품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절절하게 반영하면서 올해의 실천공약이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실현하는 숭고한 위업이라는것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힘

있게 떨쳐나 10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성을 울릴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선전화 《장군님의 강행군과 더불어 밝아오는 강성대국!》은 흰 눈이 쌓인 야전복을 입고서 승영하게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정중히 모시고 황금빛으로 물든 배경에 굵이굵이 뻗어간 전선길과 그와 잇달아 비파하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양식화수법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은 삼복철의 무더위와, 눈비 쏟아지는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고 인민의 행보를 위해 쉬임없이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이 있어 우리 조국의 안녕이 담보되고 인민의 행복이 펼쳐지고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이밖에도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한 선전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어나갈데 대한 사상을 힘있게 반영한 선전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될것을 힘있게 호소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는 우리의 생명!》, 장군님의 령도밑에 밝아올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보여준 《위대한 장군님은 백승의 기치!》 등 작품들은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정치사상적대용량을 선전화적으로 힘있게 부각시키고있는 성과작들이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도 수없이 전시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무한계도로 짓밟아며 힘있게 전진하는 땅크를 화면근경에 강한 붉은색으로 그려주고 밝고 환한 뒤배경에는 비파하는 내 조국의 통성번영을 보여주는 상징적대상을 양식화하여 그려줌으로써 총대로 안아올 주체의 선군혁명위업희후승리의 그날을 확신케 하는 선전화 《선군은 승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태양을 배경으로 굳은 결의를 다지는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통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준 《백두의 혈통을 끝까지 이어가리!》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주체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인 인민군대에 나선 과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해공무수행에 제시된 기본과업과 부문별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선전화들이 수없이 전시되어 군사미술의 전투적성격을 강조하고있는 것은 이번 전람회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항일대전의 날날 대로의 앞장에 있던 진격의 나팔수를 배경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듯한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대각선구도로 배치하고 양식화수법과 대조수법으로 두 겹이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초소마다에 내세우는 훈련열풍을 상징적으로 형상한 《5대훈련방칙과 4대훈련원칙을 틀어쥐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완전준비태세를 갖춘 군인의 긴장하면서도 침착한 모습을 화면을 꽉 채워 든든하게 형상하고 뒤배경에는 당장 불을 토할듯 만장약도 나오고 기제도 나옵니다》는 연회색으로 펼쳐진 대야금기조를 배경으로 쏟아져 내리는 쇠물폭포가 그

해제는 군인기질을 소유하자!》 등은 모든 장비들을 선군혁명의 진위투사, 수행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단결사대로 든든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한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선 전투과업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 관철에 힘있게 호소한 우수한 작품들이었다.

올해공무수행에서 제시된 기본과업과 인민경제부문별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작품들이 수없이 전시되었던 것은 공무수행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의 특성을 잘 살려주고있다.

선전화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선전화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면 비영의 해로!》는 행복에 겨워 미소짓는 어머니와 그 곁에 안겨 고무공신을 띄우는 아들에게 밝은 모습을 생동하게 묘사하고 그 주위에 쏟아져 내리는 비단필과 탐스러운 버단,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풍만하게 그려주었으며 멀리 뒤배경에는 즐비하게 늘어난 고층빌딩들을 양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모든것들이 풍족한 강성대국의 그날을 연상케 한다.

선전화 《강제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제도 나옵니다》는 연회색으로 펼쳐진 대야금기조를 배경으로 쏟아져 내리는 쇠물폭포가 그 해제는 군인기질을 소유하자!》 등은 모든 장비들을 선군혁명의 진위투사, 수행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단결사대로 든든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한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선 전투과업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 관철에 힘있게 호소한 우수한 작품들이었다.

새해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조선인민군선전화전람회를 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새해 정초부터 초강도강군군길을 헤쳐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인창작가들이 창작하여 내놓은 선전화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4. 25문화회관에 전시하여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속에 성대히 열린 이번 조선인민군선전화전람회는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전화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현상들과 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서 대중선전운동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람회는 어머니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전람회장 곳곳에 정중히 모시도록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의 길에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선전화 《당창건 65돌을 기념하여》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자!》는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 인민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송가적양상의 기념비적작품이다.

태양과 같이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신 작품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절절하게 반영하면서 올해의 실천공약이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실현하는 숭고한 위업이라는것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힘

있게 떨쳐나 10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성을 울릴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선전화 《장군님의 강행군과 더불어 밝아오는 강성대국!》은 흰 눈이 쌓인 야전복을 입고서 승영하게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정중히 모시고 황금빛으로 물든 배경에 굵이굵이 뻗어간 전선길과 그와 잇달아 비파하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양식화수법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은 삼복철의 무더위와, 눈비 쏟아지는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고 인민의 행보를 위해 쉬임없이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헌신의 장정이 있어 우리 조국의 안녕이 담보되고 인민의 행복이 펼쳐지고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이밖에도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한 선전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어나갈데 대한 사상을 힘있게 반영한 선전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될것을 힘있게 호소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는 우리의 생명!》, 장군님의 령도밑에 밝아올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보여준 《위대한 장군님은 백승의 기치!》 등 작품들은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정치사상적대용량을 선전화적으로 힘있게 부각시키고있는 성과작들이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도 수없이 전시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무한계도로 짓밟아며 힘있게 전진하는 땅크를 화면근경에 강한 붉은색으로 그려주고 밝고 환한 뒤배경에는 비파하는 내 조국의 통성번영을 보여주는 상징적대상을 양식화하여 그려줌으로써 총대로 안아올 주체의 선군혁명위업희후승리의 그날을 확신케 하는 선전화 《선군은 승리!》,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태양을 배경으로 굳은 결의를 다지는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통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준 《백두의 혈통을 끝까지 이어가리!》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주체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인 인민군대에 나선 과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해공무수행에 제시된 기본과업과 부문별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선전화들이 수없이 전시되어 군사미술의 전투적성격을 강조하고있는 것은 이번 전람회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다.

항일대전의 날날 대로의 앞장에 있던 진격의 나팔수를 배경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듯한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대각선구도로 배치하고 양식화수법과 대조수법으로 두 겹이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초소마다에 내세우는 훈련열풍을 상징적으로 형상한 《5대훈련방칙과 4대훈련원칙을 틀어쥐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완전준비태세를 갖춘 군인의 긴장하면서도 침착한 모습을 화면을 꽉 채워 든든하게 형상하고 뒤배경에는 당장 불을 토할듯 만장약도 나오고 기제도 나옵니다》는 연회색으로 펼쳐진 대야금기조를 배경으로 쏟아져 내리는 쇠물폭포가 그

해제는 군인기질을 소유하자!》 등은 모든 장비들을 선군혁명의 진위투사, 수행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단결사대로 든든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한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선 전투과업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 관철에 힘있게 호소한 우수한 작품들이었다.

올해공무수행에서 제시된 기본과업과 인민경제부문별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작품들이 수없이 전시되었던 것은 공무수행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의 특성을 잘 살려주고있다.

선전화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선전화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면 비영의 해로!》는 행복에 겨워 미소짓는 어머니와 그 곁에 안겨 고무공신을 띄우는 아들에게 밝은 모습을 생동하게 묘사하고 그 주위에 쏟아져 내리는 비단필과 탐스러운 버단,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풍만하게 그려주었으며 멀리 뒤배경에는 즐비하게 늘어난 고층빌딩들을 양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모든것들이 풍족한 강성대국의 그날을 연상케 한다.

선전화 《극악한 조건에서도 전투의무를 자립적으로 수행할수 있게!》는 수제화수법으로 강한 직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전화의 특색을 잘 살린 우수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선전화 《멸적의 총창을!》, 《더 많은 목화를!》, 《인민을 돕자!》, 《애국의 열정 용양처럼!》 등은 회화적수법에 의한 진실한 성격형상으로 작품의 내용을 강력하게 표현하고있다.

새해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조선인민군선전화전람회의는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전투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전시됨으로써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고있다.

정 경 섭
회의의 다양
한 수법들을 선
전화적특성에 맞
혀서 그려내고는
작품들도 적지 않
게 전시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 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4일 2. 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예술단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총련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외무성에서 4일 주조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외무성에서 4일 주조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국제기구들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외국에 갔던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귀국 행기로 귀국하였다.

미국에 갔던 김책공업종합대학대표단 귀국 행기로 귀국하였다. 제류기간 대표단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두 대학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일련의 합의들이 있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보건의제가 베푸는 또 하나의 고마운 혜택

우리 나라에서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 실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로 전국이 들끓는 시기에 나라의 보건발전에서 특기할 성과가 이룩되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보건부문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확립하였다.

먼거리의료봉사는 중앙과 지방사이, 지방과 지방사이 병원에서 정기기술에 의거하여 호소강진한 면적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 등 모든 보건사업을 신속정확히 실현하며 개선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첨단의료봉사이다.

먼거리의료봉사는 중앙과 지방사이, 지방과 지방사이 병원에서 정기기술에 의거하여 호소강진한 면적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 등 모든 보건사업을 신속정확히 실현하며 개선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첨단의료봉사이다.

전반적무상치료제에 의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가 실현된것은 근로하는 인민들의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보살피려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또 하나의 크나큰 혜택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이들은 먼거리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컴퓨터에 의한 영상체의계를 위한 실형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피라는 사색과 열정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김만유병원의 먼거리의료봉사실



자강도인민병원의 먼거리의료봉사실

우리 선수들 이완 야리기기념 그랜드슬램 테니스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양정일선수는 필승의 신념과 경기에서 출진하여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로 맞든 선수들을 모두 물리침으로써 남자자유형 테니스 55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또한 서신항 선수와 한금옥선수는 여자테니스 48kg급경기에서 51kg급경기에서 2등과 3등을 하였다.

4일 우리 선수들이 귀국하였다. 평양에서 정인철 체육지도위원 부위원장, 체육부문 일꾼들과 체육인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선군문화를 꽃피우며

로산군 백화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선군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작업반에서는 리당위원회 지도밑에 마을과 일터를 사회주의경으로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초하여 이 사업에 모든 직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다.

리금숙, 윤철수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초급원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양양시켜 그들이 높은 향토애를 지니고 집과 마을, 일터를 알뜰히 꾸리도록



양정일 선수

로동농원원 리 광 북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꺾을수 없다

새해공동사실은 자주통일의 역사적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온 겨레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우리 겨레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운동을 활력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할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시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도전을 물리쳐 마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통일위업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장래와 관련된 최대의 중대사건이며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민족적의의 과제이다. 분열된 우리 민족이 살길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은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전멸위험을 가시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투쟁이다. 조선사상이라면 웅양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의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개별적계급, 계층의 리익이 민족의 리익보다 클수 없다.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도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리익우에 자기들의 리익을 올려놓아서 안된다. 분열된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투쟁은 가장 성스러운 애국투쟁으로 된다. 조국을 통일해야 우리 민족은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다. 그것건만큼 조선사람이려면 그가 어떤 사상과 리념, 신앙을 가졌건, 어디에서 살건, 재산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조국통일투쟁의 성과도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 좌우된다.

6. 15 통일시대는 애국적의의 정신, 강렬한 통일의를 지닌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주통일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해나가는 시대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으로 된다.

자주를 떠나 민족의 운명개척에 대해 말할수 없다. 자주는 민족문제해결과 운명개척에서 핵을 이룬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처럼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와 발전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지난 세기 중반기에 우리 조국의 절망적인 처지를 보며 우리 민족의 자주의지를 단단히 굳힌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깃잡고 자주적 발전을 억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위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민족은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따라

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민족자주정신의 발현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해내외의 온 민족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것은 6. 15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요구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친미사대와 외세존을 정책화하고있는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사회의 자주적발전이 심히 억제되고 조국통일운동도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있다. 그들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반공화국체제목을 미쳐날뛰고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외세와 한적이 되어 자주통일을 가로막아나서는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는 6. 15 통일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강력해지고있다. 그것은 헛된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공동사실의 호세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하나의 지향, 하나의 의지로 역사를 도전을 물리쳐서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김 정 일

한 진리성과 강박력으로 하여 온 겨레의 마음을 틀어잡았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리념, 시대의 기치로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민족운명개척의 필승의 기치가 있어 우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는 날로 더욱 억세어지고 있으며 통일운동에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지금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성원들의 광범한 지지와 참가에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는것이다.

둘이 보면 6. 15 공동선언을 무시하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은 실로 집요하고 악랄한것이었다. 지금도 미국은 대조선적대정책을 계속 추구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배치되게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데 나가고있다.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는 결코 약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강력해지고있다.

그 어떤 반통일책동도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 민족주의세력이 6. 15 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제아무리 발악해도 그것은 헛된것이다.

우리 민족은 새해공동사실의 호세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하나의 지향, 하나의 의지로 역사를 도전을 물리쳐서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높아가는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에서 민심의 지향과 의지를 거스르는 보수당국의 반역적행위를 반대규탄하는 각계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투쟁의 초점은 진보세력합당을 그리고 조국과 전향을 일삼고있는 집권세력의 망동을 단죄규탄하면서 다스리는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보수당국을 심판하기 위한데로 모아지고있다.

조국통일법민족합합 남측본부는 지난 1월 26일 당국의 독재적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소속 회원들, 《MBC》 방송의 《PD 수첩》 제작성원들에게 무죄선고와 내려진것과 관련하여 악랄수단자들이 《기자회견》이라는것을 열고 《좌익판사들재판이 총살해야 한다.》는 축언을 늘어놓으며 행패를 부린데 대해 단죄하였다. 성명은 《한나라당》과 검찰이 보수분자활동을 내몰아 판도를 바꾸도록 부추기고있다고 까밝히면서 집권세력의 이러한 독재적광풍은 민족의 의사를 외면하는 폭거로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6. 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단체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보수매거지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진보세력들의 정당한 투쟁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계속 방해해나가는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진보단체, 기자협회, 민주연선시민연합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부당한 언론탄압을 중지할것을 당국에 요구하는 연평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검찰과 《한나라당》이 《PD수첩》 제작성원들의 정당한 보도활동을 《초보시위》를 선동하기 위한 허위보도사건으로 몰아내려하며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언론 탄압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더 큰 격오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각계 단체들의 반 <정부> 시국선언운동과 시명운동도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총정 남북도지역 19개 대학 학생 330여명은 지난 1월 25일 당국의 《세종시수정안》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 그들은 당국과 《한나라당》이 《세종시수정안》을 고집하는것은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세종시수정안》을 즉시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총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정비 전면제검토 국민시명운동본부》는 지난

반 <정부> 투쟁기운

1월 21일 서울에서 당국의 환경과평화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단체는 《정부》가 수질회복과 농성지침수 등 자연환경과파괴를 빚어낸 《4대강정비》공사를 강압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 대하여 개략하고 대중적인 서명운동으로 당국의 환경과평화위를 저지시킴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희망과 대한》은 최근 집권세력의 독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북남관계의 위기를 몰아온 현 당국을 전제하며 《세종시건설계획》변경과 《4대강정비사업》강행 등 반인민적정책에 매여달리는 당국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전선을 형성할것이라고 밝혔다.

한 야당대표는 《세종시수정안판본》 제정을 추진하는 당국을 비난하면서 《정부》가 《4대강정비》공사강행과 언론 탄압날치기처리에 이어 세종시 문제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단민간선거가 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반 <정부> 투쟁기운으로 하여 남조선집권세력은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있으며 더욱 헤어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리우고있다.

김 현 철

반 <정부> 투쟁기운

북남관계개선 분위기를 흐려놓으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망동이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알려진것과 같이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연구원》과 《외교안보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그 무슨 《글로벌시대》를 가장한 《통일대계탐색연구소》라는 매우 불순한 «정체보고서»를 만들어 공개 배포하는 놀음을 벌였다. 대결광풍자들은 《통일대계탐색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글로벌시대》가 발생하면 저들이 《제한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같은 《정체보고서》이든 《글로벌시대》이든 《통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떠들어댔다. 《통일연구원》 폐기될 때는 올해부터 4년동안 매해 수십만 US\$의 자금을 투입하여 모략적인 방송선전을 《통일대계》를 한테 4편씩 만들며 해를 가늘땄 방송을 통해 내보내려 하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남조선의 국부보수분자들이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무분별하게 헤매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위대한 선군정치를 끝없이 신뢰

오늘 남침겨레는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시는 선군정치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민족적지지와 영예감을 높여주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기치로 되고있다고 한결같이 칭송하고있다.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를 기동으로 정치를 펼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있어 온 민족의 운명이 지켜지고 존엄이 고수되고있다.》

《21세기 세계정치의 대세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주도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야 한다.》

남조선각계에서 울려나온 이 목소리들은 선군정치와 존엄을 높여주는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사실 이북이 선군의 총대오만한 미국을 배설있게 대하는 평평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이부 형언할수 없는 민족적자긍심이 가슴부른다. 이북의 선군정치, 그로 해서 이남민중이 받아안은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무엇보다도 높여라.》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도 정세론도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사시절 강서약수를 안겨주며 다섯해

중구역 외성식품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얼마전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홍성진동지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의 편지에서 자기는 자선성취하기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조국의 품에 안겨 강서약수를 마시면 자기는 좋은 효과를 보겠다고, 그때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것을 전해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강서약수는 중구역 외성식품상점 봉사자들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한변도 면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강서약수를 날라다주고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의 뜻을 확실히 받아가는 외성식품상점 봉사자들의 지성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깊이 감동된 우리는 그걸로 중구역 외성식품상점을 찾았다. 《우리 상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잊을수 없는 주제 48 (1959) 년 2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상점을 찾아오시어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잘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잊지 않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조금이나마 받을 마음에서 그들

에 대한 강서약수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점심 김복실동무의 말이였다. 그들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강서약수공급을 맡아나선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이다. 그해 태양절을 맞으며 상점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로써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는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잘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수령적사랑을 인정,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우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것은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강서약수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봉사과정에 예로와 난관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다고 투쟁질하는 사람도, 주지않는 사람도 없었다. 약수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볼 때마다 즐거웠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삼해 혁명동지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혁명적동지대로 동진 단결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특히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적사랑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에서 고생하다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시고도 부족하신듯 늘 마음쓰고 계신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늘 마시는 사랑의 강서약수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런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담겨져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다수 비전향장기수들이 오랜 감옥생활의 후과로 위가 좋지 못하였는것을 헤아리고 그들이 만성질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것으로 알려진 강서약수를 마시게 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중구역 외성식품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약수공급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를 감복시켜주는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맡아나선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에서 수시전선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겪은 물 한방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실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삼복더운 무더위때면 한방울의 먹물 못이 없으면 목이 타는듯 한 갈증으로 벽체를 허다하다 숨진 동지들도 있고 물을 뜰어먹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한모금의 물을 위하여 생사를 건 단식투쟁도 하였었다. 이런 약조건으로 하여 그들의 의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이러한 그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사랑의 강서약수를 정상적으로 마시며 정수를 되찾고있으니 어찌 고마움의 격정이 솟아나지 않겠는가. **《내가 90살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있는것은 강서약수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 <정부> 투쟁기운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

반 <정부> 투쟁기운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월 29일 《정보원》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정보원》이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시민단체

평화수호는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근본담보

우리 인민을 혁명적대교조의 힘찬 진군으로 부르는 새해공동사설에는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사상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있다. 평화수호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높이 들고 나아가 할 투쟁의 기치이다.

오늘 국제정세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 들어서고있다. 전반적국제력량관계가 재편성되고 세계의 면모가 달라졌다.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오늘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목표를 제고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여기에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것이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화는 인류광명의 널빤이며 인민들은 평화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자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평화수호는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근본담보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이다.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은 력사의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침략력량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제국주의는 력사의 진전운동과 인민들의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가로막는 기본적악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 착취와 학살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을 서슴없이 강행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해 더욱 비대해진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불리해질수록 더욱더 힘의 정책에 매달리면서 인민들의 자주위업추행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절대로 평화를 선사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 인민들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다.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반제국주의 투쟁이다. 평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록 인민들의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앞길에는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때문에 그 추진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마다 그 형식과 방법이 각이하고 자기 식의 특성이 있다. 나라가 처한 환경조건, 도달할 수준,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새 사회건설의 내용과 선취투쟁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전략과 판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제국주의는 력사의 진전운동과 인민들의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가로막는 기본적악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 침략과 전쟁, 착취와 학살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을 서슴없이 강행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해 더욱 비대해진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불리해질수록 더욱더 힘의 정책에 매달리면서 인민들의 자주위업추행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절대로 평화를 선사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 인민들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다.

가능성을 타산하여 새 사회건설목표를 세우고 추진해나간다. 그러나 그 성과여부는 나라마다 다를수 있다. 그 중요한 요인인 하나는 평화로운 환경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쟁위험이 없고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는 인적, 물적 및 경제적잠재력을 새 사회건설에 집중하여 그 추진속도를 높일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있고도 하여도 그것을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데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합리적인 전쟁위험이 뒤따르고 나라의 자주권이 위협당하는 조건에서 인민들이 자기의 잠재력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할수 없다. 전쟁에 대비할수 없게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중요하게 판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항한 전쟁준비에 투쟁을 늘일수록 새 사회건설에서 일정한 제약이 받기 마련이다.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새 사회건설의 성과적추진은 세계적규모에서의 인류의 자주적본원실현을 추동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그 어느 개별적인 나라와 인민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업으로 된다. 때문에 진보적나라들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을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선차적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평화수호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새해공동사설에서 밝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데 대한 사

상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에서 평화수호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그 방도적문제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생활력과 견인력을 가진다. 평화수호투쟁은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에서 인민들이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과제이다. 인민들은 새 세기 발전을 위한 투쟁이자 곧 평화수호투쟁이라는 판을 가리고 반평화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중단할수 없이 더욱 파고히 나설수 있다.

평화수호투쟁에서 기본은 전쟁을 반대하는것이다. 전쟁은 평화세계의 근대화이며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기본장애물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해 감행되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은 막대한 인적, 물적손실을 가져온다.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보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세계에 대한 저들의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고 착취와 학살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공간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고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압력과 경제적제재, 봉쇄조치를 취하며 기회를 조성되던 무력을 동원하여 집어삼킨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전쟁목적을 수행을 위해 전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

새 세기에 들어와 감행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이 보여주는것처럼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탐욕적야망과 이익을 위해서는 리성마저 잃고 무지까지한 행위를 감행한다. 최신무기로 장비한 침략군을 내몰고 평화적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지구 화학탄을 마구 퍼부

어 한개 도시를 불태워버리다싶이 한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평화과 피자로서의 그들의 야만성과 강도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세계정세는 더욱 긴장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무력증강을 다그치는 등 새로운 전쟁준비에 역을 올리면서 평화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르고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제재, 군사적공갈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현시기 평화수호를 위해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나라들의 평화적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소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제재와 봉쇄, 군사적공갈책동이다.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봉쇄, 압력책동은 령전중심후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적패권의 한 고착위와 학살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공간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고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압력과 경제적제재, 봉쇄조치를 취하며 기회를 조성되던 무력을 동원하여 집어삼킨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전쟁목적을 수행을 위해 전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다.

전쟁험과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제재와 압력, 봉쇄책동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는다. 반면 나중에는 그의 희생물이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제재, 봉쇄책동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제때에 깨닫고 그에 맞서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못되게 된다. 약자한테는 더 사납게 굴고 강자앞에서는 비굴해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때문에 자주적인 새 사회, 새 세계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제재와 압력책동을 군사적침략을 위한 선봉작전으로 엄중시하고 그를 철저히 저지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목소리를 합쳐야 하는것이 중요하다. 투쟁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책동에 세계가 침묵을 지키면 그들은 저들의 부당한 행위를 《정의》로 묘사하면서 기세등등하여 강권행위를 일삼게 된다.

국제사회성원들은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압력책동을 묵인하지도 도와주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당면한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에 함해나서는것은 자신의 운명을 망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이무리 큰소리를 치면서 날뛰어도 국제적고립상태에서는 저들의 전쟁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때문에 그것은 유혹과 기만으로 다른 나라들을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수행에 끌어들이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앞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처할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응하여야 한다. 국방력강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나라의 방위력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새 사회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을 많이 받고있는 나라일수록 국방력강화에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 경제건설에 힘을 넣는다 하면서 국방력강화를 소홀히 하면 새 사회건설은 고사하고 나라의 자주권도 지쳐갈수 없게 된다. 국방력강화는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이고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의 근본요구이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전쟁위험이 가장 크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는 침해한 열점지역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담보해주는 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주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인류의 지향과 널린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백 문 규

로씨야대통령 련방안전국의 과업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1월 28일 련방안전국 참의회 확대회의에서 련방안전국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련방안전국의 주요과업에 대하여 테러와 핵전쟁을 막는것이라고 하면서 인구경제야문화

국과 체즈나공화국 등지에서 나타났고이는 범죄행위들은 의연히 사회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고 말했다.

련방안전국은 범죄집단들과 테러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 반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이 사업에 정권기관들

과 사회 각계층을 적극 동원시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한 련방안전국이 국가자금증원, 부정부패 등 온갖 위법행위들도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경제분야에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모스크바비 조선중앙통신》

제국주의렬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규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월 28일 한 당화석상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이 《반테러》와 《지역문제 해결》의 간판밑에 중동지역에 계속 축수를 벌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지역의 에네르자원을 독차지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란은 지역나라들과 힘을 합쳐 제국주의렬강들이 그와 같은 목적을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제 14 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진행

제 14 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이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아디스 아바바선언(은 대륙나라들의 통합을 실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서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 채택된 《아프리카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아디스 아바바선언》은 대륙나라들의 정보통신기술발전정책을 일치시키고 기술경제발전정책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 기념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들의 이어달리기 시작

【모스크바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 국경경비대원들이 2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5돐을 기념하여 대규모적인 이어달리기 시작하였다.

협동체성원국들의 국경을 따라 진행했다. 이어달리기의 기본목적은 협동체성원국인들사이의 친선과 단합을 강화하고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발취된 국경경비대원들의 영웅적

위훈을 영원히 추억하며 국경경비에 주선하는 선원들과 국경지역 주민들이 애국주의정신을 지니도록 고양하는데 있다 한다. 로씨야연방안전국 사회문화발전부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동을 단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가 1월 26일 한 상봉선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 이란을 반대하는 온갖 비법한 책동을 감행하여온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늘날은 인터네트를 리용한 모략선전감배나야를 벌리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음모책동에 각각의 역할을 놀일것을 호소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음모책동에 각각의 역할을 놀일것을 호소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고위군사고문 세이드 아흐라라히 사피는 1월 20일 한

회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불안정이 조성된것처럼 여론을 의욕하여 이란 주변 나라들에 퍼뜨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중동지역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음모책동으로 판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음모책동에 각각의 역할을 놀일것을 호소하였다.

이런데서 이란인민이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음모책동에 각각의 역할을 놀일것을 호소하였다.

이런데서 이란인민이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음모책동에 각각의 역할을 놀일것을 호소하였다.

이런데서 이란인민이 미국과 유대복고주의자들의 계속되는 음모책동에 각각의 역할을 놀일것을 호소하였다.

모성애마저 말라버린 비인간적사회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아 키우는것은 녀성의 사회적의무이다. 우리 나라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하게 키우는 모성영웅들도 있고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제 자식처럼 잘 키워 조국보위조국과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내세운 훌륭한 녀성들도 많다.

녀성은 2006년 3월 8개 월말에 안된 넷째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알고있는 첫머리를 돌볼 때 신음을 무뎠어 죽었다. 그 내막은 본보에서 누수도 못했다.

가리지 못한다 하여 때려죽이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지난해 일본후쿠시마에서는 조사자들을 인용하여 한동안에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공식 확인된것만도 4만 2 600여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한 서방의 처사를 비난

메히코대통령 페르네즈 칼데론이 1월 29일 세계경제연단에서 연설하면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한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심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지난해말에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서방나라들이 이룩한 그 무슨 《합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군대의 현대화를 다그칠데 대해 언급

캄보디아수상 혼센이 1월 28일 한 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군대의 현대화를 다그칠데 대해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시대의 요구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언급 언급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케냐와 탄자니아가 1월 28일 범죄방지, 하부구조건설,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공동공표문제를 발표하였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군사분야에서 호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인도와 앙골라가 1월 27일 원유수출 및 채취분야에서 호상 협조를 강화할데 대

증대

1월 29일 이 나라 총무성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3 17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제 같은 달에 비해 4 7만명 더 증가된것이라고 한다.

1월 29일에 3천kW짜리 발전기가 설치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3개의 발전기가 더 조립되게 된다.

무더기비해

브라질의 싼 빠울로주에서 무더기비가 계속 내려 피해를 입고있다.

주에서는 올해 1월에 들어와 2 7일까지 4 20. 4mm의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1월 강우량이 있어서 지난 15년째 최고기록으로 된다 한다.

무더기비로 6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저수지들의 물이 위험상태에 이르렀다. 현지에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민족결자를 장려할데 대해 강조

몽골수상 추흐바타린 바트블덴가 1월 20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전통적인 몽골공예를 장려할데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에 있어서나 민족의 력사와 문화는 가장 귀중한것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민족적정통을 소개념전하기 위해 몽골공예를 적극 보호하고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문제를 둘러싸고

《쌍방이 지닌 의무의 동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은 전반적인 군축분야에서 중대한 변화를 촉진할것이다.》 이것은 지난 1월 22일 로씨야의무장이 2009년 로씨야의외무정책을 총화하면서 한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 내부에서는 안전분야에서 민족적리익을 강하게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왔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전의 조약리행과정에 미국인들이 로씨야태상을 제멋대로 사할하도록 방임하고 민족적자위권을 지키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업자

1월 29일 이 나라 총무성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3 17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제 같은 달에 비해 4 7만명 더 증가된것이라고 한다.

1월 29일에 3천kW짜리 발전기가 설치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3개의 발전기가 더 조립되게 된다.

증대

1월 29일 이 나라 총무성은 조사자료를 발표하여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3 17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제 같은 달에 비해 4 7만명 더 증가된것이라고 한다.

1월 29일에 3천kW짜리 발전기가 설치되어 전력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3개의 발전기가 더 조립되게 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